

한국 주도로 아시아 농업협력의 새 지평 열다

농진청, 우즈베키스탄서 ‘아시아 채소육종·농촌지도 과제평가회’ 개최

농촌진흥청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우즈베키스탄 농업지식혁신청과 공동으로 ‘아시아 채소육종 및 농촌지도 과제 최종 평가회’를 성대히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농촌진흥청이 주도하는 한-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AFACI, Asian Food and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의 일환으로, 지난 3년간 추진된 아시아 지역 농업기술 협력사업의 결실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평가회에는 네팔, 라오스, 몽골, 방글라데시, 부탄,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등 13개국 대표단이 참석해 기술협력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아시아 채소육종 기술 개발 과제는 2019년부터 진행돼 각국의 재배 환경에 적합한 고추와 토마토의 우수 계통을 육종·선발하고, 교배조합 및 지역적응성 시험, 품종 등록 등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지난 6년간 8개국에서 토마토 25종과 고추 8종이 국가 품종으로 등록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800여 명의 연구자와 농업인들

대상으로 한 기술훈련과 함께, 채소 재배기술서 9건 발간, 방송홍보 25건 등 다각적인 확산 활동도 활발히 진행됐다.

이와 함께 12개 회원국은 ‘농업기술 정보 전달 체계 개선’ 과제를 통해 국가별 농촌지도 체계를 분석하고, 농업 기술 보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공유했다.

전문가 협의회(10회), 지도자·농업

인 연수회(22회, 536명 참여) 등을 통해 각국 간 교류를 강화했으며,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시범마을 운영(42가구), 온라인 정보 플랫폼 구축(라오스·몽골) 등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가 두드러졌다.

특히 일부 국가는 스마트 기기와 SNS를 활용한 디지털 농촌지도 시스템을 도입해 청년농업인의 정보 접근성과 전문 자문 기능을 강화하는 등,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경태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장은 “농업기술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아시아 지역의 식량 안보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한국이 중심이 되어 각국의 재배환경에 맞는 품종 개발과 정보 전달 체계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아시아의 채소 자급률 향상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정부양곡의 품질 향상을 위해 추진한 ‘옴도정 공장 선정 사업’ 결과 정음도정공장(대표 안신)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정음도정공장 ‘옴’ 선정

농관원, 시설·위생·품질관리 등 전 분야에서 우수 평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16일, 정부양곡의 품질 향상을 위해 추진한 ‘옴도정공장 선정 사업’ 결과 정음도정공장을 대표 안신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북 지역의 정부관리양곡 도정공장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시설·위생·품질관리 등 현장평가 △도정도·싸라기·파쇄립 등 품위평가 등 종합적인 심사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정음도정공장은 최신식 도정 설비를 갖추고 청결한 작업환경과 균일한 도정 품질, 체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농관원 전북지원은 이날 정음도정공장에서 ‘옴도정공장 현판식’을 열고, 관계 기관과 함께 선

정의 의미를 기념했다. 현판식에는 농관원 전북지원 관계자와 전북도청, 정음시청, 대한곡물협회 전북지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정음도정공장의 성과를 축하했다.

김민욱 농관원 전북지원장은 “정음도정공장은 철저한 품질관리와 위생적인 도정시스템을 통해 정부양곡의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모범적인 기업”이라며 “이번 선정을 계기로 지역 도정공장 간의 선의의 경쟁이 촉진되고, 전체적인 품질 수준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옴도정공장 선정 사업’은 정부양곡 브랜드인 ‘나라미’의 품질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농관원 전북지원에서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이다.

/오상근 기자

전기안전공사, APEC 정상회의

앞두고 전기안전 총력 점검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15일 경북 경주시 일대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전기설비 현장점검을 전격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예정된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내외 정상과 주요 인사, 그리고 각국 대표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예방 중심의 전기안전 관리 활동으로 마련됐다.

점검단은 행사장 내·외부 및 회의장 숙박시설, 주요 행사 지원시설의 전기설비 운영 상태와 안전관리 체계를 꼼꼼히 점검했다. 또한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긴급 대응 체계를 재확인하며, 돌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공조 시스템을 강화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APEC 회의 기간 동안 ‘APEC 종합상황실’ 내에 전기안전 전담상황실을 설치하고, 주요 시설을 대상으로 24시간 비상출동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남화영 사장은 “APEC 정상회의는 세계 각국의 이목이 집중되는 국제행사인 만큼,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현장 점검과 선제적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전기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사의 역할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여성기업이 행정기관과 현장 목소리, 정책으로 잇다

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전북지방조달청, 여성기업 경영현장 소통 간담회 개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가 지난 15일 전북지방조달청(청장 김항수)과 손잡고 지역 여성기업의 경영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조달 참여 확대를 위한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행정기관과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생생한 목소리를 공유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날 방문은 소정미 회장이 대표로 있는 ‘세계 비엔날레 건설 현장’에서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여성기업이 건설 산업에서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 애로사항과 제도적 한계에 대한 진솔한



의견이 오갔다.

관계자들은 공공조달 제도 개선과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하며, 여성기업의 역량이 공공분야에서 더욱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소정미 회장은 “여성기업이 지역 건설산업에서 전문성과 신뢰를 인정받

기까지 수많은 도전과 노력이 필요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책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여성기업이 보다 활력 있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항수 전북지방조달청장은 “현장 중심의 소통이말로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라며 “여성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전북지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는 앞으로도 공공기관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여성기업이 당당히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앞장설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농협, ‘전북 구경(9慶)브랜드 농심천심 간담회’ 개최

전북농협은 지난 15일 전북본부 회의실에서 ‘전북 구경(9慶)브랜드 농심천심 간담회’를 열고, 지역 농산물 가공품의 경쟁력 제고와 브랜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북 구경브랜드에 참여 중인 9개 농축협 책임자가 참석해 실질적인 실행과제를 공유했다.

전북 구경(9慶)브랜드는 전북 농식품의 완성도 높은 히트상품 9가지를 발굴해, 지역 농업의 자부심과 소비자



의 ‘구경’(관심과 축하)을 함께 이끌어내겠다는 전북농협의 의지를 담은 사업이다.

/오상근 기자

스마트농업으로 미래를 키우다

농진청, 영암 무화과 스마트팜 청년 창업농 현장 방문

농촌진흥청은 지난 15일 전라남도 영암에 위치한 무화과 스마트팜 청년 창업농 현장을 찾아 스마트농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청년 창업농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새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한 농촌진흥청의 중점 추진 과제 실행력을 강화하고,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 실현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승돈 청장은 지난해 스마트팜을 구축해 무화과를 재배·유통하고 있는 청년 농장을 찾아, 데이터 기반의 재배관리 시스템과 농장 운영 현황을 직접 살폈다. 해당 농가는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고, 박화점과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판로를 다변화하며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다지고 있다.

농가 대표는 “청년 창업농과 귀농인

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고, 영농 기술과 경영 능력을 지속적으로 배울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이에 이 청장은 깊이 공감하며, “스마트팜 도입 초기 시설 투자비 절감 방안을 함께 데이터 분석·활용 교육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실질적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스마트팜 융합 모형’을 적용하면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설치비 부담을 줄이고, 농가 상황에 맞춰 기술을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며 “이 모델이 현장에 보급되면 환경 관리의 지능화, 농작업 자동화,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생산성과 소득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상근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